



"현업과 개발을 잇는 AX 기획자"

9년간 사업과 서비스를 기획해 왔고, 최근 3년은 사내 AX 과제를 직접 발굴해 개발·배포하고 조직에 정착시키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기본정보

Personal Information

이름 홍한솔 / Hansol Hong

생년월일 1992.01.21 (만 34세)

연락처 010-2802-5737

메일 eplsol@naver.com

주소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학력사항

Education

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미디어문예창작전공
2010.02 ~ 2022.02 졸업 · 학점 3.3 / 4.5

경력사항

Career

(주)퍼셉트 2023.05 ~ 재직 중	경영기획그룹 과장 정규직 · 전략기획, 사내 AX 이직 사유 AX를 팀 단위로 추진하는 조직에서 일하기 위해
(주)메타크루엔터테인먼트 2022.03 ~ 2023.04	사업기획팀 대리 정규직 · 신사업기획, 브랜드기획 이직 사유 모기업 투자 중단에 따른 사업 축소
(주)성우애드컴 2017.01 ~ 2021.09	전략기획팀 대리 정규직 · 사업기획, 전략기획 이직 사유 신사업 기획 직무로 전환

총 경력 9년 4개월 · 전 직장 정규직

경력기술서

Career Details

(주)퍼셉트

2023.05 ~ 현재

전략기획

- 기술상장평가(KOSDAQ IPO)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전사 주간회의 주관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 자사 ERP/PMS 도입 PM
- 사내 DX 및 AX 리딩 (NAS 통합 시스템, CRM 등 구축 및 운영)
- 사내 AI 활성화 커뮤니티 운영
- 사명 변경 및 리브랜딩 PM

홍보/마케팅

- 월간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구독자 2,000명 / 오픈율 40% 이상)
- 자사 홈페이지 리뉴얼 PM
- 자사 홈페이지 운영 (SEO, GA4 연동 등)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전시회 개최 등 홍보 일체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회사 SNS 채널 운영
-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촬영 및 사진/영상 편집, 업로드
- Red Dot, IDEA, iF Design Award 수상 등 어워드 출품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메타크루엔터테인먼트 (바른손 자회사)

2022.03 ~ 2023.04

사업기획

- 음악 NFT 사업 및 안무창작 IP 사업 기획
- 음원 IP 제작 및 유통 사업 기획
- 안무가(댄서) 에이전시 사업 기획
- 정부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운영
- 안무가 기반 유튜브 / SNS 채널 운영

(주)성우애드컴

2017.01 ~ 2021.09

마케팅 분야

경쟁입찰

- 2021~2022 JDC 뉴미디어 홍보 사업 제안 (PT 참여, 당선)
- 2020 인천국제공항 IMC 홍보 사업 제안 (PT 참여, 당선)
- 2017~2019 서울시 서울이야기 발굴 및 확산 사업 제안 (당선)
- 그 외 다수

정기간행물 분야

경쟁입찰

- 2017~2020 차내지 《KTX매거진》 운영 사업 제안 (PT 참여)
- 2018~2020 고속버스지 《TS매거진》 운영 사업 제안 (PT 참여)
- 2020~2021 KCC 《KCC MAGAZINE》 운영 사업 제안 (PT 참여)
- 2018~2020 서울시 매거진 《서울사랑》 제작 사업 제안 (당선)
- 2018~2019 한국수자원공사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제안 (당선)
- 그 외 다수

웹진 분야

경쟁입찰

- 2019~2020 SK건설 웹진(뉴스룸) SKEYES 사업 제안 (당선)
- 2020~2021 넥센타이어 웹진 《헬로우 넥센》 사업 제안 (PT 참여, 당선)
- 2018~2020 코이카(KOICA) 웹진 사업 제안 (PT 참여, 당선)
- 그 외 다수

매체 진행

(PM, 에디터)

- 2019.6~12 산업통상자원부 매거진 《통상》 매체 진행 (단독)
- 2017.1~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 FOCUS》 매체 진행 (단독)
- 2017.1~12 한국환경공단 《자연가까이 사람이 가까이》 매체 진행 (단독)
- 2017.1~12 제주관광공사 웹진 콘텐츠 제작
- 《TS매거진》, 《THE-K매거진》 객원 기자

수상

Awards

2026	한 평 과학관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국립중앙과학관 · 결합! 분자 실험실
2015	서울 속 세계여행 관광자원화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서울시 · 동아일보
2014	Creative Challenger Program 입상 고려대학교 · 온라인 문학 플랫폼
2014	전국 대학생 6차산업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2013	병영문학상 입선 육군

보유 역량

Skills

도구	PowerPoint · Excel · 워드 · Microsoft Office · Google Analytics · Photoshop · 프리미어 · Adobe Software · DSLR
AX	바이브코딩 · AX · 프레젠테이션
강점	공감능력 · 고객응대 · 긍정적 · 결단력 · 개방성 · 솔선수범 · 자기개발

포트폴리오

Portfolio

AX 포트폴리오 인터랙티브 사이트	사이트	eplhansol.github.io/portfolio
기타 포트폴리오 마케팅 · 홍보	뉴스레터	percept.stibee.com
	유튜브	youtube.com/@Percept_co
	인스타그램	instagram.com/percept.kr

기타 사항

Additional

외국어 능력	해당 사항 없음
해외 경험	해당 사항 없음
국적 · 비자	대한민국 국적 (비자 해당 없음)

경계 없이 기획하고 한계 없이 개발하는 제너럴리스트

저는 9년 넘게 서비스와 사업을 기획하며, 요구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정의해 온 기획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은 그렇게 정의한 요구에 맞춰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 배포하며, 현업이 실제로 쓰게 되는 단계까지 일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요구를 분석하고, 설득으로 성과를 내다

첫 직장에서는 매거진 PM으로 일하며 기획과 취재, 원고 작성, 클라이언트 협업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혼자 책임졌습니다. 이후 경쟁입찰 제안 업무로 옮겨 연 50~60건의 사업을 기획했고, 당선율은 업계 평균인 30% 수준보다 높은 약 50%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입찰은 발주처가 원하는 바를 파악해 무엇을, 왜, 어떻게 할지 설계하고 설득하는 일입니다.

KTX매거진(60억 원 규모)과 TS매거진(30억 원 규모) 같은 대형 사업에서는 요구 분석부터 제안 설계와 발표까지 맡았습니다. 낯선 분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모두가 기피하던 국제통상 매거진을 자원해 PM을 맡았고, 모르는 내용은 논문과 전문가 인터뷰로 채워 가며 진행했습니다.

흩어진 요구를 조율해 실행 가능한 형태로 옮기다

퍼셉트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프로젝트를 여럿 맡았습니다. ERP/PMS 도입 PM으로는 부서마다 다르게 말하는 요구를 모아 시스템 요건으로 정리하고, 벤더와 현업, 경영진 사이에서 무엇부터 할지 조율했습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할 때는 기술사업계획서의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재무 계획과 기술성, 시장성을 숫자로 정리해 평가기관 심사에 직접 대응했습니다. 사명을 상화에서 퍼셉트로 바꿀 때는 리브랜딩 PM을 맡아 브랜드 정의부터 홈페이지 개편까지 이끌었습니다. 분야는 달랐지만, 여러 사람의 요구를 모아 다음 단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일이라는 점은 같았습니다.

데이터 정비부터 현장 정착까지 직접 책임지다

퍼셉트에서 맡은 AX 업무의 대표 사례는 사내 NAS 통합입니다. 회사 자료가 그룹·팀별로 NAS 여섯 대에 기준 없이 나뉘어 있는 한, 어떤 AI를 도입해도 제대로 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구 도입보다 데이터 정비를 AX의 첫 과제로 정했습니다. 각 팀이 자료를 어떻게 쌓아 왔는지 먼저 확인한 뒤 분류 체계와 프로젝트 코드 규칙을 설계했고, 이 기준에 따라 AI로 파일 7만여 건을 자동 분류해 통합 NAS로 이관했습니다. 그 위에 RAG 검색과 회사소개서 자동 생성 기능을 올려 사내 NAS의 Docker 환경에 배포했고, 이후 RAG 검색은 AWS ECS Fargate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전 직원이 이 시스템을 쓰고 있고, 별도 지시 없이도 직원들이 규칙에 맞춰 자료를 올립니다. 규칙이 지켜져야 자료가 다시 흩어지지 않고 AI 기능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도구를 만들 때는 성능보다 비용을 먼저 따집니다. 토큰이 곧 비용인 만큼, 성능이 좋아도 비용 대비 실익이 없으면 실패한 도구입니다. RAG 검색을 만들 때도 임직원 70명이 쓸 경우의 토큰 비용을 모델별로 미리 계산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한 뒤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현업을 먼저 찾아가 과제를 찾고, 쓰이게 만들다

AX 과제는 요청을 기다리기보다 현업을 먼저 찾아갈 때 더 잘 보였습니다. 총무팀을 찾아가 일하는 방식을 보니 협력사 평가와 계약 관리를 모두 엑셀로 하고 있었고,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을 자동으로 매기고 만료 30일 전에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영업 CRM과 주간회의 시스템도 현업을 먼저 찾아가 불편을 듣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들은 내용은 PRD·SPEC으로 정리하고, 화면을 보여 주며 합의한 뒤에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만든 도구가 실제로 쓰이게 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전사 AI 활용 게시판을 기획해 매월 우수 글과 격월 발표 세션에 보상을 걸었습니다. 다만 직원들끼리만으로는 활용이 잘 퍼지지 않아 그룹장 참여를 운영 규칙에 넣었습니다. 주간회의를 주관하며 매주 AI 안전을 올렸고, 회사소개서 제작 노하우는 Claude Code 스킬로 묶어 설치 가이드와 함께 전사에 공유했습니다. 홍보 담당으로 월간 뉴스레터를 오픈율 40%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글을 읽고 움직이게 만드는 법을 익혔고, AI 활용을 사내에 퍼뜨릴 때도 그 방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함께 검토하며 과제를 정의하다

개발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대규모 서비스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일이나 보안, 대규모 운영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다만 막히는 지점은 터미널과 에러 로그, API 문서를 직접 읽어 해결해 왔고, 모자란 부분은 개발 서적과 강의, 공모전과 해커톤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는 AX 전담 조직이 없어, 기술 설계를 함께 검토할 동료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업을 이해하는 사람과 데이터·인프라에 강한 사람이 서로 검토해야 과제가 정확히 정의되고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팀 안에서 저는 현업과의 소통과 과제 정의를 맡고, 설계는 팀 리뷰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늦어지는 원인은 대개 기술보다, 쓰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겪어 본 사람으로서 그 간극을 좁히고, 필요하면 직접 만들어 보여 드리며 일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